

F. Kafka의 “시골에서의 혼례준비”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권 오 상*

— 목 차 —

- | |
|---------------------|
| I. 서론 |
| II. '法'(Gesetz)과 自我 |
| III. 결론 |

I. 서론

1906~1907년에 쓰여진 이 작품은 Max Brod의 메모(1924.6.20)¹⁾에 의하면 픽션과 자서전을 결합시킨 장편소설로 구상되었던 것 같다.

Kafka는 1905~1906년에 未知의 연상의 여인 및 Prag의 창녀 Elvy를 통해 첫 성경험을 갖게 되는데 그 사실이 이 작품의 창작에 심리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다.²⁾ 그리고 이 작품의 예술적 구상에는 Flaubert의 표현기법(Darstellungstechnik)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Kafka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Raban이 머지 않아 新婦가 될 Betty에게로 기차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역으로 가는 모습과 그의 주변 관찰, 사람들과의 만남과 기차 여행, 그리고 신부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까지의 마차 여행등을 서술하고 있다.

미완성인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나 문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Beschreibung eines Kampfes”에 비해 예술적 수단이나 주제를 확립하려는 시도에서 결정적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Dept. of German Language of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Klaus Wagenbach: Franz Kafka. Eine Biographie seiner Jugend 1883~1912. Bern 1958. S. 238: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Ein Roman. Beängstigung eines, der heiraten will.

2) Hartmut Binder: Kafka-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München 1975, S. 62.

3) Ebd., S. 63.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한 사람으로 통일되어 나타난다는 것과 주인공의 이름인 Raban은 바로 Kafka를 나타내는 암호라는 점이다. Kafka의 암호인 Raban은 추후 작품들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인공들인 K.의 原型으로 보인다. "Beschreibung eines Kampfes"에서는 일인칭 화자의 환상 속에서 삼인칭 서술이 시작된다. 여기에서부터 Kafka의 삼인칭 서술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 삼인칭 서술은 Raban에서 처음으로 서술자의 관심과 의식의 중심점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 다른 두개의 地坪들(Ebenen)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관찰하고 있는 인식의 세계와 내면의 독백 속에 나타나는 내면 세계가 그것들이다. 이 내면 세계는 "Beschreibung eines Kampfes"에 나타나는 "내면 세계로 향한 테마"와는 달리 여러가지의 환상을 止揚하고 필수적인 환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자연주의에 입각한 인식 세계의 정밀묘사 외에도 도시 사회와 노동 세계 속에서의 주인공의 처지가 성찰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소외 문제를 관찰할 수 있다. Kafka는 이 작품에서 당장은 그가 그 원인들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소외 문제를 대인관계에서 겪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의 과정과 사회성을 면 모든 것이 괴롭고 억압적인 것으로 느껴지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개인의 개성적인 자아는 파괴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카프가가 말하는 법과 자아 상실 즉 소외관계를 주로 고찰해 보겠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다소 언급될 것이다.

II. '法'(Gestz) 과 自我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메카니즘화와 대도시의 소외과정이 뚜렷하게 노정되게 된다.

주인공인 Raban은 역으로 가려고 어느 거리에 나와 있다. 비가 내리는 거리의 맞은 편에 繪畫看板(모자이크)를 배경으로 한 귀부인이 서 있다. 그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보자.

부인이 이제 그를 쳐다보았다. 무관심한 표정이다.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회사 간판을 쳐다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Die Dame(...), sah jetzt auf ihn. Sie tat es gleichgültig, und außerdem sah sie vielleicht nur auf den Regenfall oder auf die kleinen Firmaschildchen. (SE 233)

두번째 원고에서는 이 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도 모든 행인들에게는 그 여인이 마치 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소하게 여겨진다.

Sie schien zu allen Vorübergehenden ohne Absicht fremd, wie durch ein Gesetz. (H 233)

이 여인이 낯설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法'(das Gesetz)이 Kafka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다.

Kafka가 이해하고 있는 '法'에 대해 Emiric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기의 Kafka는 '법'을 개인의 의사나 '의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는 사태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이해했다. 이 영향력이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를 소외시킨다. 이 영향력은 여기에서는 '업무', '직책'의 존재로 대표된다. (...)

Der frühe Kafka verstand also unter "Gesetz" nichts anderes als die dem Willen und der "Absicht" des einzelnen entzogene Macht kollektiv-anonymer, unbekannter Vorgänge, die die Menschen einander entfremden. Diese Macht wird hier durch "Arbeit", durch ein Dasein im "Amt" repräsentiert, (...)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은, 개개인의 의사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제도가 지닌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직책이 행사하는 힘이다.

Kafka의 '법'에 대한 견해는 그러므로 Hauser의 사회 정치적 기구나 제도에 대한 견해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옛날부터 기구나 제도들은 인간의 개성과 생명력을 말살하는 문화창조물들이라고 느껴져 왔다. 인간이 어떤 기구나 제도의 제규정에 순응해야 하는 경우에 그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임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특수성, 즉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뿐 아니라 가끔은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도 탈취당하는 것이다. 생활 형식으로서의 기구나 제도에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정신의 자율성이며, 자율성의 희생은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에게서 뿐 아니라 이 기구 외부에서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

Man hat von jeher empfunden, daß die Institutionen diejenigen Kulturgebilde sind, in denen die Entpersönlichung und Entseelung des Menschen sich am verletzendsten und empfindlichsten geltend machen. Dort, wo man sich den Bestimmungen einer Institution zu fügen hat, hört man auf, Individuum, Person, man selbst zu sein, und wird nicht nur seiner Besonderheit, seines unverwechselbaren Wesen, sondern oft auch seiner menschlichen Würde entkeidet. Das, was einer Institution als Lebensform vor allem zum Opfer fällt, ist die Spontaneität des Geistes, und zwar nicht nur bei denjenigen, die sie verwalten, sondern auch bei den meisten Leuten, die mit ihr von außen in Berührung kommen.⁵⁾

4) Wilhelm Emirich : Franz Kafka, Wiesbaden 1975, S.115.

5) Arnold Hauser : Der Ursprung der modern Kunst und Literatur (dtv), München 1979, S.106.

이 기구나 제도들은 마치 내부 기관 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그 특성이다. 이 기구나 제도들은 개인과 개별적인 경우를 무시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위험하고, 실질적으로는 매우 합目的的인 形式重視 傾向과 통하는 것이다.

기구나 제도들은 변화가 무척 완만하다. 그리고 그 특성 중의 하나가 그 구조의 타성과 경직성이다. 그것들은 존재 이유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대부분 원래의 목표했던 시한을 넘겨 계속 존속한다. 이 분야의 문화창작물에서 정신에 의한 창작물들의 독자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개인은 자기가 국가, 교회, 법정, 경제 사회 등의 창작물 속에 숨어 있는 익명의 세력들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처럼 느끼는 것이다.

개인 이 기구나 제도들이 행사하는 힘에 의해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마치 인형처럼 이들에 의해 조종을 당하는 것이다.

문명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이 자신들이 이룩한 문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구나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개성과 자아를 짓밟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영향력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영향력 앞에서는 개인의 의도나 의사는 무시되며, 따라서 개개인의 개성과 자아는 상실되고 천편 일률적이고, 소외된 인간들만 남게 된다.

이러한 인간들의 극단적인 예가 Kafka의 장편소설 "Das Schloß"에 등장하는 주인공 K.의 두 "조수들" (S 22)이다. 이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유치한 조수들로서 계속해서 K.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일을 방해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책, 즉 '법'에 지배를 받아 K.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현직책을 가지고 있는 한, 즉 그들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는 한은 자기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을 표출시킬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견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말을 하지만 K.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아를 상실하고 로봇과 같은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직책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의 행동은 달라진다. K.가 매를 때려 그들을 해고하고(S 131), 그에게 이 이상 더 접근하지 못 하게 했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직책'에서 풀려나게 된다. 따라서 K.에게 이제는 그들이 관청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임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모든 일을 어렵게만 여기는" 업무 수행중인 K.를 농담, 웃음, 야유 등을 통해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다(S 221). K.가 놀라서 조수였던 Jeremias에게 "너희들이 처음 내게 왔을 때 바로 왜 지금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근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한다(S 222).

이와 같은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직책은 인간을 職業의 영역과 私的 영역으로 분할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개성과 자아를 말살하는 직책에 대한 Raban의 다음과 같은 사유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 얘기해도 그 여인은 놀라지 않겠지.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직무를 수행 하느라 너무 피곤해져서, 휴가를 만끽할 수도 없게 된다. 아무리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애정으로 대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외롭고, 낯설고, 호기심의 대상일 따름이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대수롭 지도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바로 너라고 시인한다면, 너는 아마도 傷處를 입은 것처럼 놀라게 될 것이다.'

'Also' dachte er, 'wenn ich es ihr erzählen könnte, würde sie gar nicht staunen. Man arbeitet so übertrieben im Amt, daß man dann sogar zu müde ist, um seine Ferien gut zu genießen. Aber durch alle Arbeit erlangt man noch keinen Anspruch darauf, von allen mit Liebe behandelt zu werden, vielmehr ist man allein, gänzlich fremd und nur Gegenstand der Neugierde. Und solange du man sagst an Stelle von ich, ist es nichts und man kann diese Geschichte aufsagen, sobald du aber dir eingestehst, daß du selbst es bist, dann wirst du formlich durchbohrt und bist entsetzt'(SE 234)

과도한 업무로 인해 Raban에게는 사생활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힘든 일을 감내해나 가는 데에 도움이 될 따뜻한 人情味같은 것도 주변세계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직업의 영역과 私的 영역이 나중에 쓰여진 "Die Verwandlung"에서 처럼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분이 되고 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인해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의 제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인공 Raban도 행동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인간들 중의 하나이며 이같은 소외 의식을 가지고 길 건너 있는 여인을 보기 때문에 그녀는 마치 繪畫看板(모자이크) 속의 여인으로 비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아닌 광고화된 생명이 없는 기능적인 존재로서 낯선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책이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인간들은 서로 상대방을 서먹서먹하게 생각하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직책이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인 Kafka의 '법'은 나중에 나온 장편 들인 "Der prozeß"와 "Das Schloß"의 法廷과 城 當局이 소유하고 있는 '직책'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城 當局者들에 대항하여 자기(Selbst)를 방어하려는 K.에게 그 當局者들이 생소한 것은 이 當局者들이 바로 그들 자신도 잘 모르는 '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에 근거한다. 이 '법'은 당 국자들에게 바로 '私的' 存在인 '자아'(Ich)에 대해 무심하게 대하도록 강요하며, 더욱이 그것을 조심하도록 강요한다. 왜냐하면 私的 存在가 직책상의 조직을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모든 것이 개인을 초월해서 총체적으로 통용되는 '법'들의 지배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當局者들은 피할 수 없는 억압을 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법칙 들을 따르는 연애감정도, 또 마찬가지로 심리학적 논리학적 성찰의 조건들의 지배를 받는 정신적 인 사유 과정도 마찬가지로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Kafka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겠다. "Zur Frage der Gesetze"에 법에 관한

진전된 내용이 나타난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들의 법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소수의 귀족 그룹의 비밀이다. 우리들은 이 오래된 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법들에 따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Unsere Gesetze sind nicht allgemein bekannt, sie sind Geheimnis der kleinen Adelgruppe, welche uns beherrscht. Wir sind davon überzeugt, daß diese alten Gesetze genau eingehalten werden, aber es ist doch etwas äußerst Quälendes, nach Gesetzen beherrscht zu werden, die man nicht kennt. (SE 314)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들”에 대해 우리들은 잘 알지 못 하며, 그것들은 “작은 귀족 그룹”의 專有物이 되어 있다. “이 법들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해석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 해석 역시 이미 법이 되어 버렸다. 법 해석에는 융통성은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SE 314) 그리고 “귀족은 법 해석에서 자기의 이해 관계로 영향을 받을 이 유가 전혀 없다. 법은 처음부터 귀족을 위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족은 법 밖에 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법이 전적으로 귀족의 수증으로 넘겨졌던 것처럼 보인다.” (SE 314) 또 “귀족이 행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SE 314)

이와 같은 법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귀족은 작품 “Die Abweisung”에서는 “大領” (SE 310)으로 등장한다. 그는 “법과 인물이 하나가 된 귀족들 중의 하나”⁶⁾이며, 그는 “법을 받쳐주고 있고 또 법은 그를 받쳐주고 있다.” (SE 312) 그는 “도시”를 통치하는 “최고위관리” (SE 310)로서, “나이가 많고” (SE 310), “세무서장” (SE 310)이기도 하다.

그는 주민들의 조그마한 청원도 들어주지 않는다. “주민 대표가 청원을 가지고 그의 앞에 서면, 그는 세계의 벽처럼 서 있다. 그의 뒤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 그는 전체의 결정을 의미 한다.” (SE 311) 그는 주민들의 조그마한 청원, 예를 들어 “1년 동안의 세금 猶豫” (SE 312) 나 “값싼 건축용자재” (SE 311) 같은 요구까지도 거절하며 부하 관리를 시켜 “청원은 거절되었습니다. 다 들 물러가시오.” (SE 313) 라고 전달한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된다.

당신은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까지도 가져가시오.

Nun hast du uns alls genommen, was wir hatten, nimm bitte auch uns selbst noch dazu. (SE 311)

6) Ebd., S. 209.

법을 대표하는 그는 주민들의 "모든 것"을 "貢物"으로 빼앗아 갔고,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법'과 이것을 대표하는 '귀족'의 속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자아가 어떻게 말살되는가를 "Die Truppenaushebung"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는 "邊境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투(SE 315)때문에 "모병이 불가피하게 되고"(SE 315), 모병관으로 "젊은 귀족"이 등장한다. 모병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날짜와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자기들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Es ergeht der Auftrag, daß an einem bestimmten Tag in einem bestimmten Stadtteil alle Einwohner, Männer, Frauen, Kinder ohne Unterschied, in ihren Wohnungen bleiben müssen. (SE 315)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없이 자기 집에서 군대에 소집되는 것이다. 아무도 기피해 보려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다만 몇 번인가 한사람이 자리에 없었는데 그는 언제나 남자였다." (SE 316)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결코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불안해서 그 곳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병역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병역에 대한 명령은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너무나 거창한 것이어서, 그가 제발로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도피를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숨어 있는 것이다." (SE 316) Emrich에 의하면 "남성들만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이 모병으로 인해 그들의 '자아'가 최종적으로 존속되느냐, 파괴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⁷⁾ 다른 사람들 즉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징집되어 변경으로 끌려간다. 그들에 대한 집단적인 징집 결정이 모병관에 의해 간단히 내려지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자아가 비정한 젊은 귀족이 대표하는 '법'앞에서 잔인하게 유린당하게 된다.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 시대로 진입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그들은 자신들의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다.

도시 주민들이 자진해서 募兵에 應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병에 다른 지방 출신의 한 처녀가 자원한다.

가끔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기록부에 登錄되어 있는 것보다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7) Ebd., S. 209.

8) Ebd., S. 212.

예를 들어 타지방의 소녀가 참여해서 모병관인 귀족을 쳐다보는 일이 그것이다. 그녀는 이곳 출신이 아니고 아마 시골이 고향일 것이다. 모병이 그녀를 이곳으로 오도록 했던 것이다.

Es geschieht aber auch, und dieses ist häufiger, daß mehr Leute da sind, als in dem Verzeichnis stehn. Ein fremdes Mädchen ist zum Beispiel da und blickt den Adeligen an, sie ist von auswärts, vielleicht aus der Provinz, die Truppenaushebung hat sie hergelockt. (SE 316)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 반대로 이런 일은 몇몇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성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야 할 일들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치르는 罪科이다.” (SE 316) Emrich에 의하면 이 여성의 應募는 “분명히 존재-여기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존재-의 罪科를 치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영위되는 생에 대해서는 代價가 지불되어야 한다. 이 일은 모두가 존재의 邊境으로 끌려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⁹⁾

이 여성은 타향에서 행해지는 모병에 참여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罪科를 지불하려는 그녀의 채비는 하나의 높은 영예로 느껴진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축복 이상” (SE 317)으로 여긴다. 이와 같은 여인으로 인해 이 집 짓체에 축복이 가득차게 된다.

그러나 모병이 시작되자 이제 사태가 반전된다. 귀족이 그녀의 채비 곧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귀족이 입장할 때까지 존경을 받는다. 귀족이 입장하고나서부터는 그녀의 인기는 현저하게 하락한다. 귀족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 (...) 지금이야 비로소 그녀는 타지방의 모병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군인이 명단을 낭독한 후, 그녀의 이름이 없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며 허리를 굽히고 문을 나선다.

So geehrt ist sie aber nur bis zum Eintritt des Adeiligen, von da an verblüht sie förmlich. Er sieht sie ebensowenig an wie sie andern, (...), erst jetzt merkt sie eigentlich, daß sie sich zu einer fremden Aushebung gedrängt hat, und wenn der Soldat das Verzeichnis vorgelesen hat, ihr Name nicht vorkam und einen Augenblick Stille ist, flüchtet sie zitternd und gebückt aus der Tür. (SE 317)

‘귀족’의 ‘법’이 지닌 “쌀쌀맞음”(Unnahbarkeit)¹⁰⁾이 여기에서는 “Die Abweisung”의 높은 귀족이 지닌 그것의 범위를 훨씬 넘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높은 귀족인 대령은 “힘 있는 개인”으로서 “사소한 청원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때때로 들어 주는” (SE 313) 인정미를 보였던 것이다.

9) Ebd., S. 213.

10) Ebd., S. 215.

그러나 인간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즉 자기 자신의 희생과 완전한 포기조차도 그녀에게는 젊은 귀족에 의해 거부된다. 젊은 귀족은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고유한 존재양식과 자유로운 '자아'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소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냈다.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녀를 이곳으로 오도록 한 것은 "반대의 기대"도 아니었다. 즉 그녀에게는 귀족이 자기에게 시선을 주리라는 기대는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여성들이 베푸는 慈愛心에 대한 기대나 특히 귀족에게 존경을 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관점에서 순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타향에서의 모병에 응하고 싶은 "유혹" 역시 우쭐한 충동이나 순수하고 사심없는 자의적 결정의 손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비난받을 그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지도 않다. 오직 "여기에서는 오히려 자기 여성 족속의 죄과를 지拂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의 속죄를 하라는, 자기에게 내려진 召命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¹¹⁾ 그녀는 침착하고도 즐거운 태도로 자기의 생활에서 뛰쳐나오려고 한다. 그녀의 고향은 그녀에게는 타향이 된다. 그녀는 다른 생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속에서는 모든 세속적인 것이 없어지고, 또 그녀는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죄과를 지拂하게 되어 성스럽고 순수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결심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심에 대한 존경심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절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 기묘한 일을 이 작품 속의 '젊은 귀족'의 특징을 서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회초리"가 "그가 가진 裝備의 전부"이다. 그는 깡마르고, 키가 크지 않으며, 허약하고, 너절한 복장을 하고 있으며, 지친 눈빛을 하고 있고, 惡寒이 환자를 엄습하듯이 불안한 빛이 언제나 그를 감싸고 있다. 누구를 쳐다보는 일도 없이 그는 회초리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SE 315) 매를 맞는 사람들에게 그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쾌해서 떨어뜨린 회초리를 집어서 자기에게 주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요구가 이루어진 후에야 매맞은 자는 나머지 사람들이 서 있는 열로 들어갈 수 있다." (SE 316) 이 젊은 귀족은 몸매나 복장,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현대의 "퇴폐적인 속물"¹²⁾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젊은 귀족은 '법'이 지니고 있는 "최후의 비정함"¹³⁾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성벽 뒤에는 정말로 "더 이상 아무 것" (SE 311)도 없다. 그러나 그 성벽 앞에도 역시 아무 것도 없다. "그가 누구에게 시선을 준다해도 後者は 시선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SE 317) 그의 시선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허공을 응시한다. "惡寒이 환자를 엄습하듯이 무엇인가가 계속 그를 엄습한다." (SE 315) "법은 그에게서 병들어 지옥의 법으로 되었다. 이 법 안에서는 다만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자연법칙들만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예외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한세기의 법으로 되어버린 것

11) Ebd., S. 215.

12) Ebd., S. 218.

13) Ebd., S. 216.

이다. 이 젊은 귀족 속에 우리 세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이 나타난다."¹⁴⁾

예외가 없이 자연법치들처럼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이 젊은 귀족의 법 앞에서는 모든 책임있는 자아가 배제되고 단지 전체에 대한 결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 젊은 귀족에게는 이 세계로부터의 자아의 철저한 추방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기의 법을 "Amerika"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거대한 '중간기관'¹⁵⁾을 독점하고 있는 中間商인 Green, Polunder와 장편소설인 "Der Prozeß"의 '문지기'와 똑같은 호텔 守衛長 등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또 "Der Ptozeß"의 법정과 "Das Schloß"의 관청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장편들에 나타나 있는 '법'에 관한 논의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제 다시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로 돌아가서 앞에서 인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자.

그는 생각했다.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져서, 휴가를 만끽할 수도 없게 된다. 아무리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애정으로 대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외롭고, 낯설고, 호기심의 대상일 따름이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대수롭지도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바로 너라고 시인한다면, 너는 아마도 傷處를 입은 것처럼 놀라게 될 것이다.'

'Also' dachte er, 'Man arbeitet so übertrieben im Amt, daß man dann sogar zu müde ist, um seine Ferien gut zu genießen. Aber durch alle Arbeit erlangt man noch keinen Anspruch darauf, von allen mit Liebe behandelt zu werden, vielmehr ist man allein, gänzlich fremd und nur Gegenstand der Neugierde. Und solange du man sagst an Stelle von ich, ist es nichts und man kann diese Geschichte aufsagen, sobald du aber dir eingestehst, daß du selbst es bist, dann wirst du formlich durchbohrt und bist entsetzt'(SE 234)

여기에는 Heidegger의 'Man'¹⁶⁾의 개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개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平均性" (Durchschnittlichkeit)을 의미하며, 現存在의 인간이 "누구" (Wer)냐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말이다. 이 개념을 Heidegger을 통해 살펴 보겠다.

世人이란 개념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며, 근원적 현상으로서 인간 존재를 긍정적으로 파악한 데

14) Ebd., S. 216.

15) Ebd., S. 219.

16) Martin Heidegger : Sein und Zeit, Tübingen 1986, S. 117 ff. : 현존재(Dasein)는 세계 속에 被投되어진 세계존재(In-der Welt-sein)인데 세계 속에서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를 상실하는 비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인"으로서 평준화되고 주체성이 상실된 중성자이며 규정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서 기인한다.

Das Man ist ein Existenzial und gehört als ursprüngliches Phänomen zur positiven Verfassung des Daseins.¹⁷⁾

일상 생활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世人이라고 답변이 되는 이 世人은 모든 존재가 그의 손아귀에 내맡겨져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다.

Das Man, mit dem sich die Frage nach dem Wer des alltäglichen Daseins beantwortet, ist das Niemand, dem alles Dasein im Untereinandersein sich je schon ausgeliefert hat!¹⁸⁾

우선 '現存在'는 고유의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의 '나'가 아니고 세인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타인들이다.

Zunächst 'bin' nicht 'ich' im Sinne des eigenen Selbst, sondern die Anderen in der Weise des Man!¹⁹⁾

平均化가 '世人'이 지닌 하나의 존재적 특성'이다. 그리고 이 平均化는 가능한 모든 존재의 동일 수준을 의미한다.

Die Durchschnittlichkeit ist 'ein existenzialer Charakter des Man', und bezeichnet die 'Einebnung aller Seinsmöglichkeiten'²⁰⁾

現存在는 일상적인 공동 존재로서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現存在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타인이 그의 존재를 탈취해 갔다. 타인의 姿意가 현존재의 일상적인 존재 가능성을 지배한다. 이 타인은 특정의 타인이 아니다. 반대로 타인이면 누구나가 그를 대신할 수 있다.

Dasein steht als alltägliches Miteinandersein in der Botmäßigkeit der Anderen. Nicht es selbst ist, die Anderen haben ihm das Sein abgenommen. Das Belieben der Anderen verfügt über die alltäglichen Seinsmöglichkeiten des Daseins. Diese Anderen sind dabei nicht bestimmte Andere. Im Gegenteil, jeder Andere kann sie vertreten.²¹⁾

위에 인용된 '世人'의 모든 정의들은 '世人'에 대해 수호되어야 할 인간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상실에 맞추어지고 있다. 결국 現存在(Dasein)는 세계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비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現存在는 공동 존재로서 타인의 지배를 받아 그의 본래적인 존재를 탈취당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Raban 역시 자아를 상실하고 '世人'의 존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17) Ebd., S. 219.

18) Ebd., S. 218.

19) Ebd., S. 219.

20) Ebd., S. 217.

21) Ebd., S. 216.

Raban은 世人(Man)과 自我(Ich) 사이의 이와 같은 분열(Spaltung)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으로 느끼며 놀라는 것이다." (SE 234)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직업'에 바쳐야 하고, 모든 것이 그 직업에 예속되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아는 설 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Kafka가 "Der prozeß"와 "Das Schloß"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직책이 행사하는 막강한 위력을 표현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초기의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 Raban은 생활 과정 전체가 직책이 행사하는 생소한 총체적 영향력하에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는 이 영향력들이 두려워진다. 이 영향력들은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또 그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소하게 작동하고, 그는 극단적인 반감을 갖지 않고서는 이러한 영향력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소름이 끼치는 그로테스크의 절정은, 이와 같은 반감이 자기 자신의 '결혼 준비' 즉 시골에 있는 신부에게로 가는 여행에 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世人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설 땅을 잃은 '自我'는 어린 시절에 품었던 憧憬으로서 "투구풍뎡이가 되고 싶은 소망"과 나이가 많은 약혼녀인 Betty에 대한 불만(SE 238) 속에 등장한다. Raban은 압박해 있는 결혼을 짐이 되는 의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가 관계를 맺었던 Prag의 창녀 Elvy에 대한 기억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싶은 것이다. 사회적 강제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Raban의 마음 속에 그가 원래의 자기의 것이 아닌, 따라서 자기에게 생소한 존재라는 감정을 일깨우게 되고, 그의 내면적인 갈등들을 증폭시켜 그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 탈출구는 新婦에게로의 여행 도중 Raban에 의해 행해지는 공상 속에 나타난다. 이 공상은 Kafka 작품에 나타나는 기묘한 동물변신의 중심점이 된다.

그런데 어렸을 때 위험한 일들이 닥치면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내가 직접 시골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옷 입힌 내 육체를 보내야지. 房門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도, 그 비틀거림은 공포가 아니고 無用性의 표시이다. 층계에 걸려 비틀거리어도 흐느끼면서 시골로 가서 울면서 저녁 식사를 해도, 흥분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에 나는 침대에 누워, 황갈색 이불을 덮고, 약간 열어놓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마시고 있을 것이다. 골목길의 마차들과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번쩍이는 지면 위를 지나간다.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 마부와 보행자들은 수줍다.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쳐다보면서 간청한다. 나는 그들을 격려한다. 그들은 지장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 침대에 누워 있는 나는 큰 풍뎡이, 하늘가재 또는 쌍무늬바구미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풍뎡이의 커다란 모습, 그렇다.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시도했다. 다리를 불룩한 몸으로 눌러 붙였다. 몇 마디 속삭인다. 곁에 바싹 붙어 서서 굽혀 있는 처량한 육체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이다. 지시가 끝나자, 육체는 절을 하고 신속히 걸어간다. 내가 쉬는 동안, 육체는 모든 일을 잘 수행할 것이다.

Und überdies kann ich es nicht machen, wie ich es immer als Kind bei gefährlichen Geschäften machte? Ich brauche nicht einmal selbst aufs Land zu fahren, das ist nicht nö-

tig. Ich schicke meinen angekleideten Körper. Wankt er zur Tür meines Zimmers hinaus, so zeigt das Wanken nicht Furcht, sondern seine Nichtigkeit. Es ist auch nicht Aufregung, wenn er über die Treppe stolpert, wenn er schluchzend aufs Land fährt und weinend dort sein Nachtmahl ißt. Denn ich, ich liege inzwischen in meinem Bett, glatt zugedeckt mit gelbbrauner Decke, ausgesetzt der Luft, die durch das wenig geöffnete Zimmer weht. Die Wagen und Leute auf der Gasse fahren und gehen zögernd auf blankem Boden, denn ich träume noch. Kutscher und Spaziergänger sind schüchtern und jeden Schritt, den sie vorwärts wollen, erbitten sie von mir, indem sie mich ansehen. Ich ermuntere sie, sie finden kein Hindernis. Ich habe, wie ich im Bett liege, die Gestalt eines großen Käfers, eines Hirschkäfers oder eines Maikäfers, glaube ich(...). Eines Käfers große Gestalt, ja. Ich stellte es dann so an, als handle es sich um einen Winterschlaf, und ich presse meine Beinchen an meinen gebauchten Leib. Und ich lisple eine kleine Zahl Worte, das sind Anordnungen an meinen traurigen Körper, der knapp bei mir steht und gebeugt ist. Bald bin ich fertiger verbeugt sich, er geht flüchtig und alles wird er aufs beste vollführen, während ich ruhe. (SE 235)

Raban은, 시골에 있는 자기 신부감을 방문하는 일이 수반하는 불편함과 수고(SE 234) 그리고 결혼에서 오는 압박감 등을 모면해 보기 위해 자기를 분할하는 공상을 해보는 것이다. 그의 원래의 자아는 자기 잡에 머무르면서 커다란 투구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옷을 걸친 몸뚱이' 즉 그의 외양(Fassade)²²⁾이 세상으로 나가, 그 곳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구풍뎅이는 여기에서는 '純粹自我'(reines Ich)²³⁾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 자아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모습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그것은 포유동물이 아닌, 곤충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인간과는 가능한 한 거리가 먼 동물로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자아는 독신생활을 한다. 독신생활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자아가 순수 자아로서 기반을 다져 분열을 성취하는 이유이다. 그가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은 여인들을 짐으로 떠맡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인들은 생활, 세계, 사회 그리고 인류를 나타낸다.²⁴⁾

'自我'(das Selbst)는,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하고 동물로 되면서, 육체와 인간과 사물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 구원 방식으로서 그의 마음에 들었던 인간 이전의 동물로서의 이 존재 형식은,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일종의 '꿈' 상태와 '동면'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위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존재 형식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으로서의 성찰과 노력이 배제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꿈속에서는 육체와 인간 그리고 밖에 있는 거리의 움직임도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조종하고 결정할 수

22) Walter H. Sokel :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Frankfurt a/M 1979. S. 89.

23) Ebd., S. 89.

24) Ebd., S. 89.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종과 결정은 합리적인 조종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지시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존재 형식 속에서 '위험한 일들'인 '직책' 속의 의도적인 '世人'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슷한 장면이 "Das Schloß"에도 나타난다.

K.는 자고 있었다. (...) 피로한 의식은 사라져 버렸다. 그는 스스로 자유스러운 몸이라고 느꼈고 (...)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일로 큰 승리나 거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 비서 한명이 잠 속에서 K.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 도대체 그것이 싸움이었던 말인가? 참다운 저항은 있지도 않았다.

K. schlief, (...) das lästige Bewußtsein war geschwunden, er fühlte sich frei (...) und es war ihm, als sei ihm damit ein großer Sieg gelungen, (...) Ein Sekretär (...) wurde von K. im Schlaf gedrängt. (...) War es überhaupt ein Kampf? Es gab kein ernstliches Hindernis. (S 249)

물론 이것은 단지 꿈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Das Schloß"에서도 유사하게 곧장 주인공의 소망이 실제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K.의 패배를 초래한다. 그가 꿈을 꾸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Bürgel에 의해 제공된 아주 좋은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의식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무의식적 존재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존재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에서도 이와 같은 夢想的인 가능성은 Raban의 일시적인 생각으로서 나타나며 곧 다시 없어진다. Raban은 실제로는 자기의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자아를 夢想的으로 동물의 형태 속에서 침대에 있게 하고 옷만을 걸친 껍데기로서의 자기의 육체만을 시골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止揚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이 동물로서의 존재 형식은 Kafka에게는 언제나 인간 존재의 모순을 표현하는 중요한 가능성의 하나였다.²⁵⁾ 동물은 아직까지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제한하는 의식 속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여전히 사망으로 펼쳐지는 '자유'라는 위대한 감정 속에서 살고 있다. 동물로서의 존재는, 그러므로 Kafka에게 우선은 긍정적인 영역이다. 이 영역은 비록 어린아이의 감정 세계와 정신 단계에 대한 회상의 형태로서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자유롭고 구속력이 없는 내면 세계에 존재한다. 이 존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합리적인 차단된 상태인 인간의 '꿈' 속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동물로서의 존재와 합리적인 노동 세계 사이의 갈등이 Kafka의 많은 동물적 형상들로서 은유화되어 나타난다.

25) Wilhelm Emrich : a. a. O., S. 118.

Ⅲ.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주인공 Raban이 직책이 행사하는 총체적인 영향력하에서, 사회 기구나 제도가 행사하는 익명성의 힘 앞에서 환언하면, '법'으로 인해 그의 고유한 존재가 파괴되어 개성이 상실되고 특색없는 평균인인 世人으로 존재하는 것을 고찰해 보았다. 이 世人으로서의 존재는 바로 소외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 처음으로 막연하게나마 현대 산업사회의 메카니즘화와 대도시의 소외과정이 나타난다. 본 작품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메카니즘화된 사회질서는 '법'이라는 말로 구체화되어 인간의 고유한 존재를 파괴하여 그를 소외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법에 관한 이야기는 Kafka의 다른 작품들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Zur Frage der Gesetze"에서는 법들은 "우리들을 지배하는 작은 귀족 그룹"의 專有物이 되어 "귀족이 행하는 것이 바로 법"이 된다. 이와 같이 법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은 "Die Abweisung"에서는 大額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법과 인물이 하나가 된 귀족들중의 하나"로서 도시를 통치하는 "최고위 관리"이며 주민들의 請願을 들어주지 않는다. "Die Truppenaushebung"에는 募兵을 관장하는 젊은 귀족이 나타나는데 그는 법이 지니고 있는 "최후의 非情함"을 나타낸다. 예외가 없이 자연법칙들처럼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이 젊은 귀족의 법 앞에서는 모든 책임있는 자아가 배제되고 단지 전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뿐이다. 이 세계로부터의 자아의 철저한 추방이 이 젊은 귀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서 법은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한세기의 법으로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세기의 법을 "Amerika"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거대한 '중간기관'을 독점하고 있는 中間商인 Green, Polunder와 장편소설인 "Der Prozeß"의 '문지기'와 똑같은 호텔 守衛長 등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또 "Der Prozeß"의 법정과 "Das Schloß"의 관청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는 Kafka가 소외 문제의 원인으로 메카니즘화된 사회질서를 생각하고 있는 첫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그의 거의 전 작품에서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은 소외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I. Texte

H=Kafka, Franz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hrsg. v. Max Brod, Frankfurt a/M 1983

S=Kafka, Franz : Das Schloß. Roman, hrsg. v. Max Brod, Frankfurt a/M 1980

SE=Kafka, Franz : Sämtliche Erzählungen, hrsg. v. Paul Raabe, Frankfurt a/M 1980

II. Sekundärliteratur

Binder, Harymut : Kafka-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München 1975

Emrich, Wilhelm : Franz Kafka, Wiesbaden 1975

Hauser, Arnold : Der Ursprung der modernen Kunst und Literatur(dtv), München 1979

Heidegger, Martin : Sein und Zeit, Tübingen 1972

Sokel, Walter H. :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Frankfurt a/M 1979

Wagenbach, Klaus : Franz Kafka. Eine Biographie seiner Jigend 1883~1912, Bern 1958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O-Sang Kwon

In dem Frühwerk Franz Kafkas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aus den Jahren 1906/7 wird zunächst der Entfremdungsprozeß der modernen Arbeits- und Großstadtgesellschaft durchreflektiert.

In diesem Werk benutzt Kafka den Begriff 'Gesetz', der die anonyme Gesellschaftsordnung bedeutet. Er versteht also unter 'Gesetz' nichts anderes als die dem Willen und der Absicht des einzelnen entzogene Macht kollektivanonymer, unbekannter Vorgänge. Diese Macht wird hier durch 'die Arbeit', durch ein Dasein im 'Amt' repräsentiert.

'Das Gesetz' übt den vernichtenden mächtigen Einfluß auf jeden einzelnen Menschen und zerstört sein eigentliches Wesen. Raban, der Protagonist verliert sein Selbst vor diesem Gesetz und Heideggers späterer Begriff, bedeutet eben den entfremdeten Menschen.

Man kann in den anderen Werken den weiter entwickelten Inhalt des 'Gesetzes' finden.

Im Werk "Zur Frage der Gesetze" gehört das 'Gesetz' der kleinen Adelgruppe, welche uns beherrscht. In der Erzählung "Die Abweisung" repräsentiert der Oberst, bzw. Obersteuereinnnehmer das 'Gesetz'. Er ist einer jener Adligen, in denen Gesetz und Person eins geworden sind. Er weist als oberster Beamter alle Bitten der Bevölkerung ab.

Der junge Adelige, der Protagonist des Werkes "Die Truppenaushebung" stellt die letzte Entmenschung des Gesetzes dar. Das Gesetz ist in ihm erkrankt zum Gesetz der Hölle, zum Gesetz eines Zeitalters, in dem erbarmungslos nur noch automatisch Naturgesetze abrollen, von denen es keine Ausnahme mehr gibt. In diesem jungen Adligen erscheint das bestimmende Gesetz unserer Zeit. Vor seinem Gesetz wird jeder einzelne Selbst ausgeschaltet. Der Mensch als eingens Wesen, als freies Selbst existiert für ihn nicht, und es gibt nur eine Entscheidung für alle.

Wir können dieses Gesetz auch in den Romanen erkennen. Bereits in Kafkas erstem Roman "Amerika" wird es in den riesigen Vermittlungsinstanze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sichtbar, in den Herren Green und Pollunder oder in der Gestalt des riesigen Hotelportiers. Auch in den Gerichtsstuben und Kanzleien im "Der Prozeß" und "Schloß" findet sich dieses Gesetz.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ist wohl das erste Werke, in dem er erkennt, daß die Entfremdung durch die mechanisierte Gesellschaftsordnung verursacht wird. In diesem Werk beginnt er, die Kritik an der modernen Menschenkultur zu üben, indem er das Entfremdungsproblem, das Schicksal des modernen Menschen behandelt.